

第111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6月7日(木) 午前 11時03分 開式

第111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2. 國旗에 대한敬禮
3. 愛國歌齊唱
4. 殉國先烈및護國英靈에 대한默念
5. 開會辭
6. 閉 式

(11時03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1회 鐘路區議會 臨時會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겠습니다. 壇上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경애(敬愛)하고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또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鐸 副區廳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푸르름과 싱그러움이 날로 짙어가는 신록(新綠)의 계절을 맞아, 지난 임시회 이후 달포만에 개최되는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모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임시회가 한달 넘어서 열리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는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쁘게 많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아래 실시한 춘계세미나를 겸한 군부대 방문 및 장병위문을 비롯하여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체육대회 그리고 경로잔치 등과 같은 각종 지역행사와 민원해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일들이 지역 또는 의회차원에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우리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최전방 군부대에서 개최하여 국가방위 안보시설 시찰과 현장체험 등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동료의원들께서는 명예직으로서 가족부양을 위한 생업(生業)활동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오직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심심(深甚)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 종로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吳弼根 議員과 이한희, 고기영 공인회계사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몸바치신 애국선열과 전몰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분들의 높고 거룩한 뜻을 되새기며 명복을 비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민족은 숭한 위기와 국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눈부신 번영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애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보다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오늘의 세태(世態)에서 그분들이 남긴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이 더욱 절실해지며 이룩한 위업(偉業)들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웃과 주변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예우와 존경의 감사를 드리고 생계곤란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달, 6월이 오면 생각하게 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이라는 지방의회 부활 10년이 넘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6년이 되는 동안 지방자치관련 법들이 현실에 맞게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법령의 상당부분들이 불합리하고 자치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자치단체장을 감시·견제하여야 하는 의회에 대해 조례제정권의 제한, 예산의 심의와 확정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및 의회사무국직원 등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임명 등은 의회의 권한과 지위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나 명예직인 우리 의원들은 먼저 생계(生計)를 위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비전문가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통제를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발전과 구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한계들이 개선 또는 시정되어야만 하고, 지방의원 유급제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음

을, 지방의회 부활 10년이 넘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1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터득하신 소중한 경험과 폭넓은 전문지식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하나 하나에 심혈(心血)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머지않아 다가 올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상습 피해지역은 근본적으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상시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돌발호우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11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5分 閉式)

○出席議員數 18人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保 健 所 長 李星世